

# 科學技術情報交流 韓國이 主導

第7次 ASCA會議, 4個項 공동성명 발표

## 科學外交로 國威宣揚 期待

科技處 主管으로 지난 17일부터 서울世宗文化會館 大會議室에서 열렸던 아시아 科學協力機構(ASCA) 第7次 會議는 19日 4個項으로된 共同聲明書를 採擇 발표하고 結幕을 내렸다.

이번 第7次 會議 공동성명 요지는 ① ASCA 地域內 會員國間의 科學技術협력이 더욱 切實하다. ② 이같은 協力の 한 方法으로 科學技術정보 교류를 위한 科學技術情報機構를 설치하고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가 이 업무를 주도한다. ③ 會員國들은 科學技術개발 및 公業발전에 따른 標準化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地域內 計量, 計測, 檢定制度센터를 구성하는 동시에 韓國標準研究所가 國家 計量計測檢定制도에 關한 ASCA總覽을 발간한다. ④ 第8次 會議는 “인도네시아”에서 第9次는 “말레이시아” 10次는 “방글라데시”에서 開催한다는 것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ASCA 會議는 아시아 태평양地域의 唯一한 政府間 國際機構로서 70年 “마닐라”에서 아시아태평양地域의 15個國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던 아시아 科學長官會議의 決定에 따라 設立된 것이다.

그동안 日本, 印度, 豪州, 泰國, 紐질랜드 등에서 6차에 걸친 會議를 가진바 있으며 事業目的은 ① 地域內 국가간의 科學技術情報 交流 ② 地域內 국가간의 科學技術 共同關心분야 및 共通問題에 關한 토의 ③ 地域內 국가간의 科學技術진흥정책에 關한 檢討등으로 되어있다.

현재 호주, 버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등 非共産國家 15個國이 ASCA담당관을 두어 국가간의 科學協力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會議에도 아시아 태평양地域 15個國 代表 60餘名과 4個 國際機關 및 2個 유럽국가로부터 10여명의 傭서버가 참가하여 이會議에 對한 아시아태평양地域國家들의 關心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實感케 했다.

더우기 이번 第7次 會議는 本會議에 앞서 KIST主管으로 “工業發展을 위한 연구 개발 活動의 역할”과 韓國標準研究所 주관으로 “工業發展과 標準化”에 對한 事前세미나를 가져 더욱 意義를 크게 했다.

이 두세미나에서 發表된 論題는 모두 34篇으로 15個國家가 거의 빠짐없이 參與하는 熱意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會議는 아시아태평양地域國家가 지니고 있는 科學技術에 關한 問題點과 水準이 어느程度인가를 部分的이나나 一瞥할수 있는 機會가 되었다고 하겠다.

더우기 큰 收穫의 하나는 科學協力の 基本이 되는 科學技術情報交流 業務를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가 主導하고 各會員國의 地域內 計量, 計測 檢定制도에 關한 總覽發刊 業務를 韓國標準研究所가 擔當키로 決定했다는 點이다.

이 國際機構를 通하여 會員國間의 科學協력이 얼마나 效果있게 能率의으로 展開될것인지는 아직 未知數라고 하겠다.

그러나 目的事業의 一部를 우리나라에서 主導하여 所期의 目的達成에 寄與할수있는 機會를 갖게 되었다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번 會議를 契機로 國際間의 科學協력이 더욱 活性化되고 國威를 宣揚할수있는 보다 次元 높은 科學外交가 이루어질것을 期待해본다.